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3 쪽(표지 제외)이며, 논제는 1문항(1,200자, 100점)입니다.
3. 답안은 답안지(원고지)에 작성합니다.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로 쓰면 분량 감점이 없습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근대 산업 사회에서 오랫동안 노동으로 두드러지게 평가된 것은 공장이나 들판에서 몸을 써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노동의 성과는 만들어 낸 물건의 양으로 측정되었고, 그 대가는 임금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다 사무와 연구, 교육처럼 머리를 쓰는 일이 늘어나면서 노동은 정신적인 영역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항공기 승무원은 승객에게 짐을 건네고 음료를 나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원이나 판매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직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수고를 감정 노동이라고 부른다. 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렇듯 노동은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넘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수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끝없이 넓어지고 있다.

(나)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상에서 노동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먹고살기 위해 필요에 매여 하는 일은 자유롭지 못한 활동으로 여겨졌고, 그런 일은 주로 노예의 몫이었다. 자유로운 시민에게 어울리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동체의 일을 논하는 정치 활동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사색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노동에 대한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대지와 그 산물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 신체를 움직여 하는 노동을 자연물에 더하면, 그것은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 노동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땀 흘려 일군 땅과 거둔 곡식이 일한 사람의 것이 되는 까닭은 바로 그 안에 그 사람의 노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크는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것이 남아 있는 한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다. 로크는 사람이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 산물을 쓸 수 있는 만큼의 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원천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천한 일로 여겨지던 노동은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든던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둬 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번찔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 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홀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 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엣, 엣,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번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더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 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 해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뱜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중간 줄거리: 응오의 형 응칠은 오 년 전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세간과 빚진 곳을 적은 글을 벽에 남기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가, 끝내 식구와도 헤어졌다. 그 뒤로 떠돌며 노름과 좀도둑질로 살아왔고, 몇 차례 붙잡혀 옥살이도 하였다. 아우가 그리워 오랜만에 찾아온 응칠은 응오의 논에서 벼가 없어진 것을 맨 먼저 발견한다. 소문이 나면 전과가 있는 자신이 먼저 의심받으리라 생각한 응칠은, 도둑을 제 손으로 잡아 혐의를 벗으려고 궂은 날 밤 산중턱의 논이 내려다보이는 서낭당 근처에 숨어 몽둥이를 들고 지킨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서 서성서성할 때이었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왱, 왱,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확실히 벼를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여깽이 같은 놈이 궂은 날새를 기화삼아 맘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굶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거라. 이를 한번 부드득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논께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께로 바특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남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 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몸뚱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봇짐을 등에 짊어메고는 허리를 구붓이 뱅손을 놓는다.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께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걷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홱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봇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퉁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봇짐을 들어 본다. 가뿐하니 끽 말가웃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벼를 논에다 도로 털어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렷다. 에—이 고얀 놈, 할 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 장리(長利):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그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받는 일. 도지(賭地): 남의 논밭을 빌려 부치고 내는 세. 우두망찰하다: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문제] (가)의 ㉠과 (나)의 ㉡을 중심으로, 노동에 대해 두 제시문이 강조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의 ㉢이 가진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진정한 노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1,200자, 100점)

〈끝〉